

농촌진흥청, 지식재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3명 수상

- 제9회 지식재산의 날 맞아 지식재산 발전 유공 표창
- 원예·축산 분야 연구 성과 창출, 활용에 기여한 공로 인정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은 9월 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‘제9회 지식재산의 날’ 기념 포상 시상식에서 소속 연구기관 연구사 3명이 유공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.

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. 지식재산 창출·보호·활용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한다.

이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, 관련 분야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취지다.

수상자는 △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재순 연구사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) △국립축산과학원 우제훈 연구사(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) △국립축산과학원 박성민 연구사(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)이다.

김재순 연구사는 공기 중 수분을 물로 전환하는 ‘물 만드는 화분’ 모형(모델)을 개발해 교육부 검정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수록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. 또한, 뇌활성 등 치유 효과에 기반한 미래세대·노년층 맞춤형 콘텐트를 보급하는 등 농업 기술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기여했다.

우제훈 연구사는 국산 폴사료 품종 개발부터 재배·생산·이용까지 전 과정에

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해 안정적인 폴사료 생산과 자급 기반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.

박성민 연구사는 바이오(Bio)·정보통신기술(ICT) 융복합 연구를 통해 아시아 최초 국산 로봇착유기 상용화와 유두탐지 등 핵심기술 국산화를 달성했다. 아울러 수출을 통해 케이(K)-축산의 세계 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.

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“청의 연구 성과가 농업과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일에 힘을 모으겠다.”라며 “이를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, 기술이전과 실용화에 속도를 내 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
붙임. 제9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수상자 현황

담당 부서	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	책임자	과 장	이상훈	(041-580-6740)
		담당자	연구사	우제훈	(041-580-6767)
	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	책임자	과 장	김상범	(041-580-3380)
		담당자	연구사	박성민	(041-580-3383)
	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	책임자	과 장	김광진	(063-238-6900)
		담당자	연구사	김재순	(063-238-6953)

□ 시상 개요

- 목적: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개인·단체를 발굴·포상해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

□ 수상자 현황

훈격	수상자		공적 내용
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		김재순 연구사 (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)	○ 공기중 수분을 활용하는 ‘물만드는화분’ 모델(초등 과학교과서 수록), 뇌활성 등 치유효과에 기반한 미래세대·노년층 콘텐츠 개발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
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		우제훈 연구사 (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)	○ 국내 재배환경에 적합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(IRG) 신품종 개발 및 기술이전 ‘스파이더’, ‘오아시스’, ‘얼리버드’, ‘아우라’ 등 개발 ‘스파이더’ 기술이전 3개소, 기술료 1억 1,319만 원
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		박성민 연구사 (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)	○ 국산 로봇착유기 개발 및 사업화 로봇착유 시스템과 자료 수집 체계 구축 아시아·유럽 지역 2개국에 총 15대 수출